

자문 의견서(보완)

○ 건 명 :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

의견	비고
<p>1) 검토의견(사전) 반영 필요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사전검토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반영필요. <p>2) 침류시설 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침류통 + 침류트렌치 + 침류통 + ... 에서 침류통과 트렌치 양쪽이 제대로 되도록 설계 필요함.- 침류통의 유입구 관저고보다 유출구 관저고로 높게 설치하여야 하며 침류통에서 침류수위가 충분히 회복되도록 유입구와 유출구의 관저고 조절 필요함- 우수생물장은 (인공지반위) 침류가능보다 증발량보다 인공지반이 발휘되도록 설계가 필요함, 제사된 우수사드 설치 계획은 적절하지 않음 <p>3) 빗물생수시설 계획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이종수생이 나다 설계된 것으로 (2개조, 여과수생, 유입관, 증발관, 빗물수생) 관저고에 적절히 설치해서(관저) 정수부까지 제거하고 수생수유입은 하지 않도록 함	

2024. 3. 14

자문위원 _____

- 2024년 제3차 저영향개발 자문회의(대면) -

자 문 의 견 서(보완)

○ 건 명 : 북아현3 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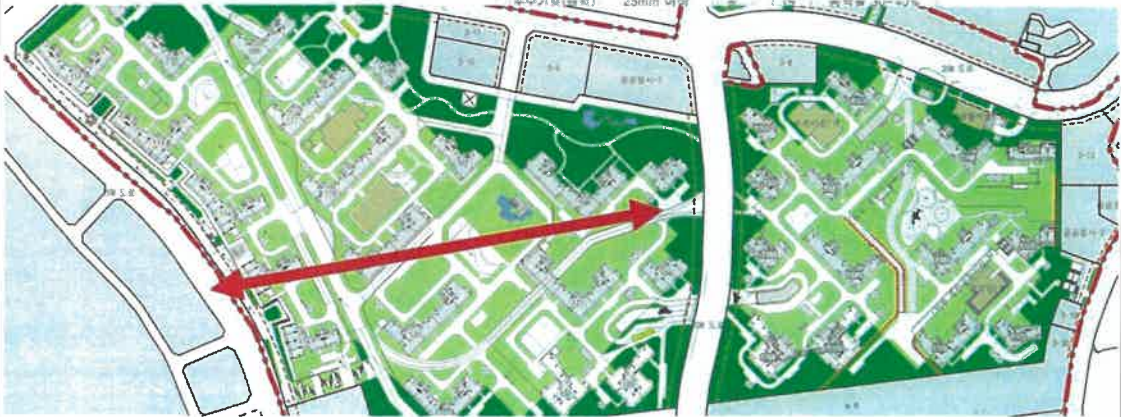
의 견	비 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• 동배수구역 (소배수구역) 구역을 명확히 하여 동일 배수구역의 배수 발생량을 동일 지점에서 취득 이용이 가능하도록 우선 고려.• 침투용 상부(그레이팅) 형상물, 흙 등 유입 유입 방을 방지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 요망.• 탁수분류 막힘이 최소화 될수 있도록 계동, 설계,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선정함.- 빗물이용 사항은 가량 소규모로 구분하여 수취하여 근거리에서 공급가능하도록 하여야 함.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- 4 4분력 소규모로 설치 고려 필요.- 1분력 현재 4개를 계획하였으나 건물배치 및 이격거리를 고려하여 1~2개 추가 방안 고려 필요.	

2024. 3 . 14.

자문위원

- 2024년 제3차 저영향개발 자문 소위원회 -
자 문 의 건 서(보완)

○ 건 명 : 북아현 3 재정비촉진구역

의 건	비 고
<p>1. 자연지반 연결의 한계</p> <p>쇄석골재를 포설하려 해도, 너무 구간이 길어서, 배수를 위해서는 외곽으로 경사를 줄수 없으며, 빠른 배수를 위해, 중간에 수직드레인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, 그럴 경우, 어차피 수직드레인을 통해 대부분의 빗물이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.</p>  <p>인공지반 하부 자갈 배수층을 자연지반으로 연결하는 것은, 인공지반 가장자리 약 5m 이내에서는 가능할 지 몰라도, 전체 인공지반은 위와 같이, 훨씬 길어서, 중심부에서 가장자리로 경사를 줄 수 없으며, 수평으로 건축슬래브를 조성할 수 밖에 없는데, 그럴 경우, 중심부에서는 어차피 맹암거로 모이는 빗물을 정체 시키지 않고 배제 해야 하기 때문에, 수직드레인을 통해 집수정으로 유입시키게 됩니다.</p>	

의 견	비 고
<p>사전협의를 통해 충분히 이러한 하자발생 가능성을 제거할 수 있지만, 현 상 태를 그대로 유지하고자 한다면, 반드시 누수에 유의하여, 입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방수처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.</p> <p>그간 운이 좋게도 크게 사회적 문제가 되지는 않았지만, 앞으로는 1)건설현장 시공 품질 저하(공사비, 외국 노동자), 2)투수블록 1등급(2025년 2등급(투수능 5배), 2026년 1등급(투수능 10배))확대 (예전에는 3등급을 써서 6개월 정도면 대부분 막혀서, 투수가 잘 안되었지만, 1등급은 투수성능이 매우 좋아서, 비교 할 수 없을 정도의 빗물이 유입됨) 위의 2가지 이유로 인하여,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입니다.</p> <p>2. 빗물이용 시설 빗물이용 저류조와 집수면적 간의 연결에 총 연장 1300m 의 관로를 사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. 인접한 건축물에 빗물이용 시설을 분산 설치하되, 옥상녹화 없는 건축물 옥상 을 연결하기 바랍니다.</p>	

2024.03. .

자문위원